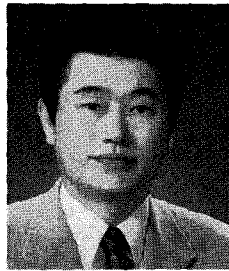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최 상 태
농림부 축산물유통과장

1. 소 전산화사업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소 전산화사업은 원래 가축개량을 목적으로 대형목장을 소유한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소 개체별 식별표를 부착시키고 이를 전산화하여 개체별 사양관리와 개량을 하기 위해 시작되었으

며, EU 13개 국가에서는 국가간 가축이동시 개체식별표를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질병관리와 방역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해방이전부터 국가비상동원령에 의거 소 개체별로 비문(코무늬)을 등재하여 관리해 왔다.

지난해 3~4월동안 세계를 떠들석하게 한 광우병(BSE)보도이후 전세계적으로 소 전산

화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준비와 한우고급육 생산 촉진 및 소 수급관리를 정밀하게 하여 2001년 개방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5년 5~10월기간동안 소 전산화요원 4천 5백명을 선정하여 조사표 작성 바코드귀표장착, 전산등록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군 축산공무원과 농가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95년 10월 31일부터 전농가의 한우와 젖소에 대하여 전산화 사업을 시작했다.

소 전산화작업은 전산화요원이 개별농가를 방문하여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소를 2~3명이 한조가 되어 일일이 바코드귀표를 부착하고 소의 개체별 특징을 조사하여 전산입력용 조사표에 기입한 후 시·군청 축산과에 제출하면 시·군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전산입력시키고 입력된 자료는 농림부 중앙전산실을 통해 취합되며, 이 자료들은 1차 검색과정을 거쳐 한국축육개량협회 부설 소 전산처리팀에 위치한 소 데이터베이스에 통합관리된다.

소 전산화 작업은 전산입력등 다른 분야의 전산사업보다 작업과정이 매우 힘들며, 기초자료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매때에 따른 이동 도축등으로 변동이 빈번하여 기초자료의 30~40% 정도가 연간 변동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노력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귀표부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화요원의 부상과 스트레스를 받은 소의 유사산·폐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을

정착시키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EU와 같은 국가들도 3~5년이 걸렸다.

당초 소 전산화작업을 95년부터 서둘러 실시하게 된 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도입을 위해 소 개체별 식별표 부착 및 전산입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산화작업에는 △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확보 및 교육 △ 전산기기 장비의 보급 및 적응훈련 △ 농가의 충분한 인식과 참여등 조직화 작업 △ 기초자료의 입력과 데이터베이스 구축등 전산개발에 최소 2~3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97년말까지 소전두수 전산화완료와 동시에 98년 7월부터 실시할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전국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전국 1백 73개 시·군의 소 전산화사업은 대부분 70%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관심부족과 농가 호응이 낮아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소개체의 ID번호(예: 주민등록번호)부여와 개체별 특성관리를 통해 소 개체별로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축공제제, 우수축 출하포상금, 거세장려금 등급판정결과등)이 신속히 전산처리되어 농가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갖추어 농가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한다.

소 전산화사업은 아직 보급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동되는 소에 대한 등록관리가 어려우나, 가축시장과 도축장에도 바코드 탐독기를 금년 말까지 보급토록하여 자동전산입력 자료관리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고, 소 전산화 일제신고 및

정비작업(금년 하반기중)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검토중에 있다.

동 사업이 계획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 축협, 도축장 경영주, 시군·시도 공무원 및 전산요원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코자 한다.

2. 개방대응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이후에도 과연 한우가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어왔다.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품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개방되었으며, 이윤만을 노리는 국내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수입을 서두르고 있고, 부두에는 통관을 기다리는 대기물량이 줄을 잇고 있다.

소꼬리는 통관 허용규격이 반골을 제외한 순수꼬리로 큰소 1마리당 1.2kg정도가 생산되는데, 18톤 컨테이너로 5~10개가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물량은 큰소 10만두에서 생산되는 꼬리물량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해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001년 개방시 경쟁가능한 예상가격 수준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차원보다는 이윤을 위해서는 소꼬리 10만개라도 수집하여 국내에 팔려는 식육유통업자들의 구매 선택에 달려있다고 본다.

우리와 사육형태가 유사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91년 4월 쇠고기 개방에 대비 10년 이상

육성해온 화우산업을 지키기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제등 여러 대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개방이후 4~5년동안 끝없는 소값하락을 경험하였으며, 다행히 지난해 광우병 영향과 긴급관세조치(SSG)발동으로 화우값은 다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개방은 어차피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이며, 개방유예기간 역시 3년반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 있고 설상가상 사육두수 과잉과 소비부진으로 지난해 12월이후 계속 하락되어온 소값을 볼때 과연 한우가 경쟁에서 쫓겨나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지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자아내게 된다.

지난 94년도 UR타결시 대부분 한우농가들은 좌절과 개방화에 대한 불안이 커져 소값 폭락이 나타났으나 일부 앞서가는 한우농가들은 고급육생산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3년이상 각고의 노력으로 고급육생산기술 습득과 철저한 사양프로그램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전국에는 69개의 고급육생산 브랜드업체가 결성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소값불황속에서도 자체 판매망을 통해 고급육을 출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개방에 대비하는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한우도 경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예라고 본다. 그렇다면, 2001년개방시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시 한우 5백kg 1마리당 평균 2백만원으로 전망하였으나, 금번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재검토한 결과 이를 차별화하여 한우 1등급은 2백 30만원, 2등급은 2백만으로 조정했다.

이 검토과정에서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와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많았으며, 대부분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예상가격을 2백만원에서 2백 3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경쟁가능 예상소값은 2001년 개방시 수입되는 외국산 수입육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한 것이며, 개방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가격수준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가 미리 이를 정하여 소값을 낮출도록 하느냐는 불만이 있겠으나 수입개방의 충격은 경쟁가능 수준이상으로 국내 가격이 높을 때는, 수입업자들이 수입이윤이 크다고 보고 구입에 혈안이 되어 과거 바나나 수입 때처럼 과도한 물량도입으로 국내 소값의 폭락을 초래할 것이다.

지난 7월 14일자로 발표한 한우산업종합대책은 2001년 수입개방에 대비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와 고급육생산 산업으로 집중육성시킨다는 목표아래 수입개방시 경쟁가능 예상가격인 2백만원 수준까지 원가절감과 함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2백 50만두에서 2백 60만두의 적정두수와 한우고기 자급육을 30%(국내산 40%)를 유지하는 한편, 1등급 고급육 출현율을 96년 19.4%에서 2001년에는 40%까지 끌어 올려 나가기로 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개방후 한우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한우전업농 1만호 육성키로 하고 올 하반기중 일관사육농가 5천호와 비육농 5천호를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대상자들의 농가 경영수준을 평가해 벤치마킹 제도를 도입, 단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며

낮은 송아지가격에서도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이 유지되도록 송아지생산안정제를 98년 7월부터 실시하여 2006년까지 4천 4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간 75만두에서 80만두의 송아지 생산공급이 가능하도록 1백 10만두에서 1백 20만두 수준의 암소 번식농가의 유지하는 번식기반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우연구전문화를 도모키 위해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산하 내관련지소와 남원지소를 한우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한우 계열주체로 육성, 지역별로 고급육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고급육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축산물등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매단계 구분 판매제를 정착시키며, 가축공제제도를 올해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 실시한 후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이와 더불어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와 대일 수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가. 목표 및 기본방향

(목 표)

2001년 수입개방에 대비,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강화와 고급육생산 산업으로 집중

육성

- 수입개방시 경쟁가능예상가격 200만원수준
까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 250~260만두 적정두수와 쇠고기 자급율
30%(국내산 40%)유지
- 고급육(1등급)출현율 제고:('96)19.4→
(2001)40%

개방후 한우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한우전
업농 1만호 육성

- '97하반기중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일관사
육농가 5천호, 비육농 5)
- (벤치마킹제도입) 대상자의 농가경영수준을
평가하여 단계별로 육성 지원
- 고급육사육프로그램 보급 및 조사료 부문
종합지원

값싼 우량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번식기반확보

- 연간 75~80만두의 송아지생산 공급이 가
능도록 110~120만두 수준의 암소 번식농
가 유지
- 개량농가 3만호 육성 및 송아지생산 기지화
추진

한우연구소설치를 통한 한우연구전문화 도모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산하 대관령지소
와 남원지소를 한우연구소로 확대 개편

축산물종합처리장(LPC)중심으로 고급육
생산 촉진

-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한우계열 주체로 육성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기반확충

- 축산물등급제 전국 확대 및 소매단계 구분판

매제 정착

- 가축공제제도의 전국 확대실시('97~'98. 6:
18개시·군조합 시범실시→'99전국 시행)
- 한우고기 시장차별화와 대일수출 추진

나. 세부추진계획

1) 송아지 번식기반 유지

(번식기반 확보계획)

- 개방시 250~260만두 규모의 한육우 적정
두수 유지를 목표로 가임암소 110~120만
두 수준의 번식기반 확보(연간 75~80 만
두의 송아지 생산 유도)

- 일관사육 전업농(5천호):가임암소 250천두
- '98부터 전업농 집중 육성

- 개량농가(30천호):가임암소 300천두

- 기존개량단지를 2002년에 개량농가로 통합

- 제주도 생산기지(2천호):50천두

- 교잡우 수매 및 우량한우 대체 입식 지원

- 일반부업농:550천두

- 경종겸업농으로 번식소득 및 사육기반 유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조기 실시

① 번식농가 육성방안

일관사육 전업농 선정

- '97년 하반기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일관사
육 전업농 5천호 선정

- '98 규모화·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 확
충등 원가절감을 위한 정책자금 중점 지원

- 일관사육농가의 축사형태, 조사료 확보, 경
영수준 등을 고려한 표준모델 설정 보급('97

년 하반기)

- 번식우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축산기술연구소)

□ 개량농가 확대 육성

- 2002년까지 관리두수 4두이하 농가를 제외하는 등 개량단지 운영을 내실화하고, 개량농가 대폭 확대로 현행관리두수 178천두를 300천두까지 확대
- 다만, 개량단지 명칭 사용문제는 추후 검토
- ※ 개량농가 : 암소 10두이상 상시사육농가로써 5두이상 등록이 가능한 농가를 개량농가로 선정하여 등록료, 송아지사료, 인공수정료 등을 지원

□ 제주도 송아지 생산기지화

- 제주도는 65천ha의 풀사료 생산기반(우량초지 22천ha)을 확보한 상태로 '96. 12월 현재 2,700농가에서 소 39천두 사육하고 있으나 교잡우가 대부분이며, 한우는 8천두에 불과
- 품질고급화 추세에 따라 교잡우 선호도가 떨어져 농가의 한우 입식선호 경향
- 교잡우 26천두를 2004년까지 한우로 대체 입식
- 개량단지의 우량암소(송아지) 대체입식 및 자금지원
- 우량초지 추가확보 및 축사시설 설치지원으로 한우마을 공동목장 조성
- 기초성 우량초지 22천ha중 10천ha 보완 및 우량초지 4.5천ha신규조성
- 연도별 한우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축사시설

설치자금 지원

- 제주도에 적용 가능한 방목형 한우 사육모델 및 지침 정립·보급

□ 일반부업농 지원

- '96년 한육우 사육은 농가당 평균 5.5두 수준으로 영세규모이나 부업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점을 감안 경종농업과 한우번식을 연계시켜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
- 송아지 생산안정제 조기실시로 일정소득보장
- 한계농지 및 중산간지를 활용하는 방안검토

□ 번식농가에 대한 사양관리 지도강화

- 농진청, 축산관련단체, 학계등으로 중앙 및 지역단위의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1년 1산을 목표로 번식육을 향상 지도
- 자가 인공수정 기술, 발정발견제 공급, 유산방지등 지도교육 강화
- 저수태우 등에 대한수의학적 검진체계 구축
- 농가신고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원인 분석 및 처방지도
- 번식우 사육시설개선 및 노동력 절감
- 톱밥, 팽연왕겨 등 깔짚우사를 이용한 분뇨자원화 지도
- 이동식 송아지 육성틀, 인공포유 및 사료자동급여 설비등을 개발·보급

②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

□ 실시배경

- 개방전후 급격한 소값하락으로 인해 송아지 거래가격이 번식기반 유지를 위한 안정기준가격이하로 하락시

- 기준가격과 거래시세와의 차이를 번식농가에
계 보전해 줌으로써 번식농가의 소득보호와
송아지생산기반 유지

□ 농가계약 및 보전절차

- 대상 : 한우번식농가
- 축협중앙회(조합)가 암소사육농가와 계약
체결
-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등
에서 공익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관 및 단체
는 제외

- 매년 1/4분기중 계약체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농가부담금은 계약체결시 납부
- 연도별 안정기준가격 결정·고시
- 농가, 학계, 소비자단체, 축협, 행정기관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안정기준가격 심의위
원회(가칭)에서 송아지생산에 소요되는 경
영비, 송아지가격 및 사육동향, 자가노력비
등을 감안하여 기준가격 심의
- 심의절차를 거친 기준가격은 농림부장관이
결정·고시

	송 아 지 월 령 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준가격고시 (전년도10~12월)										위원회 심의→ 농림부장관결정·고시		
절 차	←농가계약신청→			←개체확인 및 이표부착→			← 생산신고 및 확인 →					
보 전 금 지 급				←→ 평균거래가격 산정공포								
				←→ 보전금 교부대상두수 확정			← 생산자 보전금 교부 →					

□ 안정기준가격수준

- 비육우는 두당 20~30만원, 번식우는 두당
30~40만원 정도의 최저소득 보장수준에서 연
도별 경영비를 포함하여 선정
- 최저소득은 '96년 투입된 자가노력비의 60
~90% 수준 보장

□ 소요자금 및 조성계획

- 소요재원은 축발기금 80%(3,527), 지방자
치단체와 참여농가가 각 10%(440억원)씩 부
담토록 함

• 연도별 부담주체별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98	'99	2000	2001	2002~2006	계
• 축발기금	1,500	1,000	1,000	27	-	3,527(80%)
• 지방자치단체 (년도소요액의 10%)	11	70	130	108	121	440(10%)
• 참여농가 (생산농가의 90%)	1,522	1,140	1,260	243	242	440(10%)
계						4,407(100%)

□ 추진일정

-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준비단 구성·운영 (축협) : '97. 7~'97. 12
- 세부시행지침 수립 및 관계자 교육 : '97. 8~'97. 12
-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 결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
- '97. 7~'98. 6 : 계약농가 모집 및 모의연습 실시(2개군)
- '98. 7~ : 전국시행

2)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① 한우전업농 1만호 육성

□ 전업농육성대상자 조기 선정

- '97 하반기에 사육규모, 사육형태, 조사료 확보여부등 전업농자격 및 성장요건을 설정하고, 농가신청을 받아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
- 전업농육성대상 : 10천호(비육 5천호, 일관사육 5천호)
-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작업 실시 : '97. 7

~12

- 한우관련 정책지원 자금 수혜농가에 대한 경영실태분석 병행

□ 전업농육성 및 사후관리

- 전업농 육성대상자별 경영상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벤치마킹제를 도입
- '98부터 한우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및 한우관련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전업농 육성대상자 위주로 집중 지원
- 조사료 기반확보→일관 또는 비육사육→고급육생산→브랜드화→농가직거래 체계로 경영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축협중앙회에 컨설팅사업 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축협의 지도기능을 강화하여 전업대상농가별 지도 육성
- 2004년까지 전업농 탈락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 등에서 보충하여 전업농 1만호 유지

② 조사료 공급확대

□ 국내조사료 기반확충

- 사업지원대상자 및 신청량 파악
 - 지원대상자 : 전업농, 개량농가, 한우축산단지, 계열화업체등
 - 지원대상자별로 사업지원 메뉴별로 신청량을 파악하여 사업계획량 확정을
- '97 하반기 전업농 선정시 신청량 파악
 - 지원사업대상
 - 신규초지조성, 기성초지 보안
 - 전작지대 사료포 조성
 - 답작시대 논뒷구루 사료작물 재배
 - 생뿔짚사일리지 등 장비 지원
 - 조사료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개편
 - 신규·기성초지 보조지원을 상향검토(현행 : 보조 50%, 융자 50%)
 - 부실초지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대리경작 알선
 - 공동작업반(3~5호) 단위로 생뿔짚이용장비(곤포기, 램퍼등) 보급
 - 뿔짚 암모니아처리 지속추진(암모니아개스 전액보조, 비닐·뿔짚은 자부담)
 - 조사료 기계화단지 육성 및 국내산 옥수수 생산보급(중자공급소)
- 해외조사료 자원개발 및 공급확대
 - 조사료 시장접근물량(MMA)의 조기 증량 조치(양허세율 5%)
 - 해외조사료 자원개발을 위한 생산투자 가능성 검토
- ③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자가배합사료 원료 공급체계 개선
 -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전면 적용
 - '95. 10. 1 부업규모 축산농가에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연간 1,200억원 경감)
 - '97. 7. 1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연간 3,480억원 경감)
 - 전업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협, 상법상업인인 개인목장, 축산법상의 계열화업체등
 - 농가 자가배합사료용 원료곡의 수입·공급 체계 개선
 - 현재 사료용 곡물에 대해서는 저율(0~3%)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식용·가공용으로 둔갑방지를 위해 분쇄곡은 축협중앙회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수입량 배정을
 - 농가의 자가배합사료용 알곡(옥수수등)이 원활히 수입공급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지역축협별로 신청량 접수후 대량구매 및 원가로 공급
 - 항구 및 권역별로 사료공급기지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원료 공급체계 구축
 - 농가 자가배합용으로 공급된 알곡이 식용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시장·군수가 사후관리 강화
- 자가배합시설 지원
 - 영농조합법인·협업체 등 생산자단체와 전업농을 대상으로 자가배합시설 설치 지원
 - 자가배합시 가축의 능력별, 성장단계별, 사육형태별 적정 영양소함량 및 원료배합비 등 개발 제공(축협, 축기연)
 - 축기연에서 자가 배합된 사료의 품질평가 지도

④ 한우개량 촉진

- 한우 보증종모우 선발체계 개선
 - 당대검정 및 후대검정 기관 교체
 - 당대검정 : (현재) 축산기술연구소, 도종축장 → (조정) 축협한우개량부
 - 후대검정 : (현재) 축협 한우개량부 → (조정) 축산기술연구소
 - 후보종모우와 보증종모우의 선발비율 및 선발두수 증대
 - 후보종모우 : 20% (40/200두) → 10% (100/1,000두)
 - 보증종모우 : 50% (20/40두) → 30% (30/100두)
 - 도종축장은 수정란 생산·공급센터, 지역개량센터로 기능 전환
- 한우개량단지를 개량농가로 전환
 - 한우개량사업을 면단위 지역중심에서 농가중심으로 점진적 전환
 - '96년말 현재 암소관리두수 : 178천두(개량단지 133, 개량농가 45)
 - 한우암소 10두이상 사육농가로서 5두이상

등록 가능 농가를 매년 개량농가로 추가 선정

- 개량단지 지도원의 점진적인 감축으로 1단지 1지도원 배치
- 현재 지도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단지는 퇴직, 전직등 결원 발생시 충원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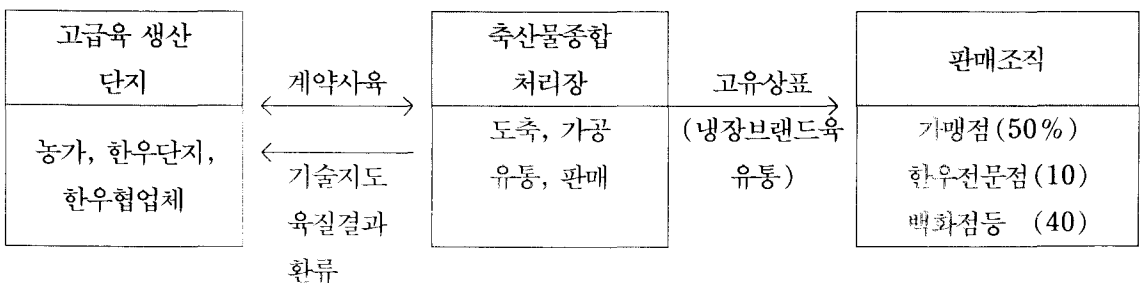
□ 가축개량 신기술 보급

- 도 종축장(9개소)을 수정란 생산·공급센터로 육성하여 농가의 우량송아지 생산지원으로 장기적으로는 성감별된 수정란 공급으로 농가가 원하는 성(性)의 송아지를 생산토록 함
- 전업규모 번식농가에 대한 자가인공수정 기술교육실시로 송아지 생산비절감 유도 및 자연종부 방지 유도

3) 고급냉장 브랜드육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

- ①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Livestock Processing Center)을 한우계열주체로 육성

□ LPC모델



□ 계열농가 지원

- 계열농가 확보 목표 : ('97) 1,000호 → (2000) 5,000 → (2004) 8,000
- LPC개소당 대구모는 400호, 중규모는 200호 내외
- 계열농가 지원강화
- 시설자금, 조사료 등 한우관련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축산경영자금 지원규모 확대
- 거세장려금 지급

□ 계열주체 지원

- 시설비 지원 : ('95~'99) 112,337백만원
- 가맹점 설치 : 2003년까지 총 1,100개소 설치로 자체생산량 50%를 판매

〈체인망 설치 계획〉

가동연도	축산물종합처리장 가동	체인점	비고
'97	1개소 (한냉(주))	150개소	('96)31개소
'98	3개소 (동아축산, 안성농축, 부천산업)	300	대구모 100
'99	2개소 (북원농산, 서울경기양돈조합)	200	
2000	7개소 ('97 선정)	450	중규모 50

• 계열주체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검토

② 지역별 고급육 브랜드화 추진

- 군단위에서 지역특성(특산물)에 맞는 고유 브랜드화 사업추진
- 브랜드 참여업체 육성목표 : ('96) 59개업체 → (2001)100
- 한우품질인증제(농산물검사소)확대 : ('96)2개업체 → (2001)100
- 특허청 상표등록 지원 : ('96)30개업체 → (2001)100

□ 고급육생산 조직체 육성

- 육우회, 협업체, 영농법인 중심으로 고급육 생산농가 참여유도

- 일일평균 2~5두의 출하가능규모로 육성 (1,200~3,000두규모 : 참여농가수 20~60호)

- 거세장려금, 조사료지원, 경쟁력제고 등 각종 정책 지원자금을 고급육생산조직체에 직접 지원

- 한우축산단지 조성사업 지원확대 및 내실화 추진

- 단지조성 목표 : ('97까지)49개소 → (2001)60

- 기존 축산단지의 실태점검 및 시설보완('97 하반기)

□ 판매망 확보 지원

- 백화점, 대형유통업체등과 직거래체계유도

- 직매(판)장 설치신청시 한우전문점 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

③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일반지원

- '98부터 송아지 거세유 출하시 마리당 5만원의 거세장려금 지급
- 공동이용 거세보정틀 공급권장 (면별 2~3개소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고급육 사양관리 표준프로그램 개발보급
- 축산기술연구소와 고급육 생산단체와 동우회를 연계한 산학연구활동 지원
- 한우의 고급육 생산기반 확립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지원
- WTO체제 및 종자전쟁에 대비 한우의 혈액형 및 DNA 구조 규명

4) 축산물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기반 확보

① 축산물유통구조 개선 촉진

- 육류도매등급제 조기정착 추진
- 소 등급판정 확대시행으로 냉장육유통 및 고급육 생산 유도
- '98부터 전도축장 등급판정실시로 냉장유통체계 확립
- 소매단계 등급구분판매 의무지역 확대 : ('97까지) 6대도시 → (2001)전국
- 등급판정기준개정 및 판정결과의 실용화 추진
-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상위등급기준을 세분화함
- (현행)육질 4개등급/육량 450kg → (조정)육질 5개등급/육량 600kg(현행 1

등급을 세분화)

- 등급판정소와 축산기술연구소 공동으로 개정하여 '98부터 시행
- 등급판정결과의 전산화처리 및 농가통보로 고급육생산을 위한 feed back체계 구축
- 부분육 상장·경매제 도입
- 1단계('98) : 서울, 김해공판장에서 자체 가공한 부분육 시범상장 실시
- 2단계('98~'99) : 전 도매시장·공판장
- 구리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내 부분육상장 전용도매시장 건설(민자 유치)
- 부천공판장 건설시 부분육가공장 및 경매시설 설치
- 기존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부분육(브랜드 업체별) 상장·경매기능 보강

□ 쇠고기의 품종별 구분판매제 실효성 확보

-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정육점에서 한우·육우·젓소고기의 구분표시 판매제 시행('97. 1)
- 구분판매 조기정착을 위해 정육점의 시설현대화 지원
- 냉장육 시설지원 : ('97년까지) 598개소 → (2001까지) 1,400개소
- 구분판매 단속 지속 실시
-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식육전문가 10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 한우고기 즉석 판별방법을 첨단과제로 채택 연구개발('98년)

□ 식육처리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확대

- 식육처리전문인력양상을 위한 교육실시

- 식육처리기술훈련원을 건립하여 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
- 건립기간 : '97년말까지 완공하여 '98년 개원계획
- 교육방법 :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직업전문교육 실시
- 교육인원 : 연간 200명 교육('97까지) 660명 → (2004까지) 2,000명
-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소지자 배출
- 2000년까지 3,000명을 배출하여 식육유통업체 핵심인력으로 활용
- 자격증 소지자에게 정부정책 유통개선사업비 최우선 지원
- 정육점 신규개설 기준강화
- 정육점의 시설을 규모화하여 냉장육판매 및 구분판매시설 확보
- 시설면적기준설정 : (현행)면적기준없음 → (조정)10평이상 면적 확보
- 신규 정육점개설 요건에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만 허용
- '98년 관련법령을 개정, '99부터 적용계획 (기존 정육점 영업 인정)

② 한우고기 소비기반 확보

- 한우고기 시장차별화 지속 추진
- 한우고기전문점 설치지원 확대
- 한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우전문점을 '99년까지 700개소 설치하여 한우유통량의 10~12%를 냉장육으로 유통('96년까지 450개소 설치)
- 년도별 설치계획 (('97)98개소 → ('98)80

→('99)72

- 육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 2000년까지 100개소 설치('97 : 23개소)
- 수입쇠고기 전문점의 국내육 취급금지규정 개정 추진
- 현재 일반정육점에서는 수입쇠고기를 취급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위반시 법적인 제재조치가 불가능한 실정
- 개방이후 한우고기의 판매차별화를 위해 법령 개정 추진
- 소비촉진 재원확보를 위한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검토
- 생산자,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등으로 구성된 한우 자조금 준비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납입방법, 납입금액, 사용방법등을 협의

- 한우고기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구축
- 도축단계에서 시행하는 항생제등 유해성 잔류물질의 검사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 ('96)7 종 → ('97)17 → (2000)82 (CODEX 기준)
- 전국단위의 소각로 건설 추진
- 폐사축의 질박우 둔갑방지를 위해 소각로 설치 추진 (4개소)
- 폐사축의 시중유통근절을 위해 가축공제사업 전국 확대
- 공제가입가축이 각종 재해 및 질병으로 폐사시 시가의 80% 수준까지 보상
- '97~'98 18개조합 시범사업 실시후 '99부터 전국확대 시행

- ㉒ 고품질 한우고기 및 거세한우 수출 추진
 - 한우고기와 생우 수출추진으로 개방시대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 수행
 - 일본과의 가격비교시 수출가능성은 있으나, 일본소비자가 요구 선호하는 품질규격과 위생수준 충족 필요
 - 수출 추진전략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을 갖춘 업체와 고품질 생산농가(지역)를 계열화하여 냉장육 수출활로 개척
 - 고품질 주산지를 수출기지로 집중 육성하여 품질균일성 확보
 - 수출정착시까지 포장비, 운송비등 수출 제경비와 잔여육처리 자금지원 검토
 - 생우수출은 거세한우로 한정하고, 손실액발생시 수출업체에 대한 보전방안 강구 지원
 - (주)한국물산 동경·오사카 상설 전시판매장을 이용 한우고기 특관 실시

다.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1) 축산조직 보장

-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축산기능 보장 및 축산전문가 배치
- 사료검사, 축산물의 품질인증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
- 시·도 및 군단위 지·사무소까지 전문인력 배치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산하 대관령 지

소와 남원지소를 「한우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한우연구의 전문화 도모

2) 축산통계 조사업무 강화

- 한육우 통계조사 내용 보강
- 사육형태별(번식, 비육, 일관)농가 및 품종별(한우, 육우, 유우)구분조사
- 축산물구매 및 소비 Pattern, 소비자 의식 변화등 조사항목 추가
- 쇠고기 구매처, 구매축종 및 소비처별 조사

3) 조사료 및 수입사료원료 사용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 양허관세품목의 한도물량 증량조치 및 적기 공급 확대
- 사료용 근채류의 이용제한(추천한도량 설정) 완화 및 종자용 옥수수의 적기 도입등
- 수입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의 기본관세화 추진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사료첨가제 이용제한 완화)의 개정

4) 한우업종조합설립을 활성화

- 지역축협의 한우조합화 유도 및 설립요건 완화 검토

5) 축산관련세제, 축사, 분뇨시설관련 법령 및 표준설계등 종합검토

- 소득세 비과세대상 부업축산업의 범위확대 추진
- (현행) 30두→(개정) 50두

2001년 한우산업의 모습

	분 야 별	'96	2001
생 산 부 문	• 사육두수	284만두	250~260
	• 사육농가수	513천호	340
	- 전업농(비육)	2.3	5
	- 전업농(일관)	0.5	5
	- 개량농가	5.8	30
	- 일반부업농	504.4	300
	• 조사료기반		
	- 초지	63천ha	74
	- 사료포, 담리작	132천ha	225
	경 쟁 력 부 문	• 경영비	
- 수소(500kg)(송아지구입가격제외)		850천원	766
- 송아지		610천원	516
• 생산성			
- 출하체중(♂)		539kg	570
- 번식률		82.5%	83.8
• 1등급 출현율	19.4%	40	
도 축 유 통	• 도축주체	도축장 (100%)	종합처리장 (30%)
	• 유통형태	냉동·지육	냉장·부분육
	• 거래관행	육량위주	육질등급
소 비	• 1인당소비량	7.1kg	10.04
	• 자급도	53%	40
	- 한우	(40)	(30)

[참고자료]

개방시 경쟁가능예상소값

〈2001년 경쟁가능 예상소값 전망〉

- '94년 한우경쟁력 제고대책 : 500kg기준 200만원
- '97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 1등급 230만원, 2등급 200만원
- 그동안의 여건변화와 고급육 선호를 반영하여 등급별 재전망

가. '94 제시된 경쟁가능예상소값(목표가격) 산출근거

- 2001년 개방시 국내 식육유통업자가 도매 시장에 상장되는 수입 쇠고기를 구입하는 방안과 산지에서 한우를 구입하여 도축·유통시키는 방안을 비용측면에서 비교하여 경쟁가능한 예상가격 산정
- 미국산 쇠고기 수입원가(CIF), 관세 41.2% 및 통관제비용을 감안하여 500kg 생축 환산시 944천원으로 추정
- 수입원가(CIF) : '92~'93기간중 미국 Monfort사 Choice급 구매단가(4\$ × 800원 = 3,200)
- 이에 2001년 관세 41.2%에 해당되는 1,318원과 통과 제비용 23원을 합한 도매시장 상장원가는 kg당 4,541원으로 추정
- 정육률을 감안하여 큰소(500kg기준)로 환산하면 944천원이 됨

- 한우고기가 수입쇠고기보다 육질, 신선도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1.8배 정도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구입할 것으로 가정
- 품질계수 1.8배 산출방식
- 일본 화우가 수입개방 이후에도 A-4등급(우리의 경우 1등급)이 수입쇠고기(목심)보다 2.33배 비싸고, 일본 육우(젓소 수소)의 경우는 수입쇠고기보다 1.23배 비싼 점을 고려
- 한우는 품질면에서 일본화우보다는 뒤지지만 일본 육우보다는 우수한 점을 감안하여 양가격차의 평균인 1.8배를 적용

- 여기에 머리, 족, 꼬리, 내장등 1, 2차 부산물 판매수입(340천원)을 합하여 산출한 것임
- 944천원 × 1.8 + 340천원 = 2,039천원
≒ 2,000천원

나. '94이후 여건변화

- 쇠고기 구입가격은 당초 상승전망과 달리 광우병 파문등으로 하락(하향조정요인)
- ('93) \$ 3.80 → ('94) 3.56 → ('96) 3.25(미국산 목심kg당 C&F기준)
- '94산출당시 환율을 1\$ 당 800원으로 계산
- 최신 환율이 1\$ 당 890원까지 급상승(상향조정요인)
- 부산물가격이 위생문제 제기(O-157 대장균검출보도)등으로 하락한 상태이며 특히 '97개방이후 지속 하락 전망(하향조정요인)

□ 품질계수 1.8배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필요성 대두

- 일본화우와 육우 평균차이를 근거로 산출하는 것은 한우와의 품질 차이, 소비자 선호등이 다르므로 타당성이 적고
- 고급육 선호에 따라 등급간 가격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마리당 200만원 산정은 무리

라는 의견제기

다. 개방시 경쟁가능예상 소값 수준 재검토

□ 전제조건

- 쇠고기 수입가격은 미국 Monfort사 Choice급 부위별 가격 및 부위별 국내 수입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수입쇠고기의 부위별가격평균〉

구분	수입·판매원가 (kg)(A)	'96수입비중 (B)	평균수입단가 (A×B)
특등육	20,737원	1.1%	228
상등육	17,055	2.8	478
중등육	4,215	62.7	2,643
보통육	3,697	4.4	163
갈비	4,868	29.0	1,412
평균		100	4,924

- 환율은 '97기준 1\$ 당 870원을 가정
- 부산물 판매수입에 2차부산물까지 포함하되 가격은 '97. 3월기준 한우수매육 1, 2차 부산물 판매가격의 60% 수준으로 계상 : 284천원
- 운송·도축료 고려 (93천원)
- 가축시장 매매수수료 8,000원, 운송료 30,000원, 도축료 55,000원

- 품질격차(선호도 차이)
 - 국내 민간 SBS용 수입쇠고기('97쿼터량의 50%)는 관세와 수입부과금(Mark-up)이 부과되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상 시장가격 비교가 어려움
 - 따라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경락가격 기준으로 품질계수 산정(1.80)

(단위 : 원/kg)

	'92	'93	'94	'95	'96	'97.4	'92~'97평균
수입육(고급지육)(A)	5,040원	4,943	4,980	4,731	4,796	4,123	4,769
한우(B)	8,223	8,588	9,227	10,295	8,793	7,437	8,761
품질계수(B/A)	1.6	1.7	1.9	2.2	1.8	1.8	1.84

※ 〈참고〉 일본화우와 미국산 쇠고기 소비자가격 비교('95 일본동경)

구 분	일본화우 A3, A2등급(A)	미국산(B)	품질격차(A/B)
냉 동 육	4,848엔/kg	2,698	1.80
냉 장 육	5,200	3,770	1.37

경쟁가능 예상소값의 재산정

〈냉동육〉

- 수입정육 1두가격 : 4,924원 × 정육량 201.0kg × 유통마진 1.05 = 1,039천원
- 한우가격환산
 - 1,039천원 × 1.80 + 부산물수입 284천원
 - 운송·도축료 93천원 ≒ 2,000천원
 - 2,061 (500kg기준)

〈냉장육〉

- 수입비용은 냉동육보다 20% 증가하는 반면, 품질계수는 냉동육 1.8보다 20% 하락한 1.4 적용
- 일본의 경우 수입냉장육과 화우와의 품질계수 : 1.4
(자료 : 축산의 정보, 축산진흥사업단)
- 유통마진은 SBS 수입대행수수료 5% 적용

• 한우환산가격

- 1,039(수입냉동육 1두가격) × 1.2(냉장육 비용증가) × 1.4(품질계수) + 284(부산물 수입) - 93(운송·도축수수료) = 1,937천원 ≒ 2,000천원(500kg기준)

〈등급을 강안한 경쟁가능 예상가격〉

• 등급별 가격 고려이유

- '93~'94 시험기간을 거쳐 '95.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등급제로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등급별로 차등화되고 있으며, 등급간의 가격차도 점차 벌어짐
- 고급육(1등급) 생산농가는 일반비육농에 비해 사육기간이 길고, 사료효율이 낮기 때문에 별도의 소값전망 필요

〈등급별 가격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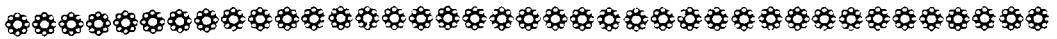
구분	년도	평균 도매가격 대비 지수			2등급 기준 지수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실적치	'93	109.8	104.3	98.4	105.3	100	94.3
	'96	119.1	109.1	92.8	109.2	100	85.1
예측치	2001	134.1	114.1	87.8	117.5	100	77.0
	2004	143.1	117.1	84.8	122.2	100	72.4

※ '95 현재 일본의 등급별 지수 : A4·A5 143.8, A3 100, A2 74.4

• 2001년 개방시 등급별 경쟁가능한 소값수준

- 1등급 : 2,285천원 (1,782천원 × 117.5% + 191천원) ≒ 2,300천원 (500kg기준시)
- 2등급 : 1,973천원 (1,782천원 × 100% + 191천원) ≒ 2,000천원 (500kg기준)

※ 고급육 1등급 마리당 600kg 출하시 2,800천원, 2등급 마리당 570kg 출하시 2,300천원



〈축산 용어 풀이〉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生物化學的 酸素要求量 :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 수중의 유기물이 수중의 미생물에 의해 산화분해 되는 때에 소비되는 산소량을 말한다. 이것은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유력한 척도이고 수중의 미생물로 분해가능한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통상 20°C에서 5일간에 산소 소비량을 mg/l로 표시한다.
- 화학적 산소요구량(化學的 酸素要求量 : chemical oxygen demand, COD) : 수중에 피산화성물질(주로 유기물)을 산화제로 화학적으로 산화분해하는 때에 소비되어지는 산소량을 말한다. mg/l의 단위로 표시한다. BOD와 같이 물의 유기질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나 BOD보다 단시간내에 측정결과가 얻어지는 이점이 있다. 산화제로는 과망간산 카륨 또는 중크롬산 카륨을 사용하며 전자는 COD_{mn}, 후자를 COD_{Cr}로 구별하여 표시한다.